

Ⅲ. 고려의 등장과 발전

주제 16) 무신정변

학 교	
학 번	
이 름	

1. 무신정변 이전의 무신들의 상황





- ☐ 고려가 대외항쟁을 벌이는 동안에 활약한 서희, 강감찬, 윤관은 모두 문신들이다.
- ☐ 무신들은 아무리 공을 세워도 최고 관직인 '품계'에서 문신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 ☐ 고려 전기에는 과거 시험에 '무과'가 없어서 무신들은 주로 추천이나 세습을 통해 관직에 진출했다.
- ☐ 고려의 군사 최고 지휘권은 항상 실전 경험이 풍부한 무신들이 독점하였다.
- ☐ 무신정변이 일어날 무렵 허급 군인들에게 월급 대신 토지인 '군인전'이 지급하여 직접 생계를 이어가도록 했다.

2. 의종의 실정과 무신들의 정변



고려의 왕이었던 의종은 노골적으로
(문신 / 무신)을 우대

⇒



문신들의 무신들에 대한 무시가 이어짐

⇒



이러한 차별적인 대우에 불만을 가진
(정중부 / 이의방 / 이고 / 경대승) 등이
보현원에서 정변

3. 무신집권기의 시기 구분

1) 무신집권 성립기 - 무신 집권자들의 계속된 변화

① 무신집권 성립기의 집권자의 변화

○ 보현원 사건을 통해 (정중부 / 이익방 / 이고 / 경대승)가 권력을 장악하고 의종을 경주로 쫓아냄

○ 무신들의 회의기구인 ()을(를) 중심으로 정치

○ 이후 권력을 장악한 무신집권자들의 불화로 이들 간의 권력 다툼이 나타났고 결국은 ()이(가) 권력을 독차지

⇒

○ ()이(가) 권력을 독차지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젊은 무장인 ()이(가) ()을(를) 처단

○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목적으로 ()을 설치

○ 결국 이른 나이에 일찍 병사

○ 무신집권자의 공백이 나타나면서 경주의 의종을 살해한 ()출신의 ()이(가) 권력을 장악

○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토지를 수탈

⇒

○ ()은(는) 자신의 동생 최충수와 함께 반란을 일으켜 당시 집권자였던 ()을(를) 제거

○ ()은(는) 자신의 동생도 제거하고 이후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지위를 물려줌

※ 아래의 그림을 위 내용의 적절한 위치에 찾아 붙여 봅시다.



② 무신집권 성립기의 전반적인 특징

※ 다음 설명 내용을 보고 옳은 내용에만 체크표시를 해봅시다.

- ☐ 무신집권자들끼리의 권력 다툼으로 잦은 집권자의 교체가 나타나고 있었다.
- ☐ 문신 중 일부 무신들과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던 이들은 무신과의 친분을 통해 관직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 ☐ 무신 세력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문신의 일부는 당시 교종 승려들과 연합하여 반무신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2) 무신집권 안정기 - ()씨 무신집권기

① 무신집권 안정기의 집권자의 정책의 특징



- 봉사 10조를 건의하며 국정 개혁 요구
- 무신들의 독자적인 권력기구인 ()설치



- 인사행정 독점기구인 ()을(를) 자신의 집에 설치
- ()를 조직하여 야간의 도둑을 단속
- 몽골의 침입에 대해서 (항복하여 정권 유지 / 결사 항전)을(를) 주장하며 ()로 천도 실시



- 최우의 서자이며 원래 승려였으나 음서를 통해 관직에 오름
- 자신의 계모를 독살하고 많은 관리를 죽임



- 몽골에 대한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의 과정에서 권력을 유지 못함
- 결국 김준, 유경 등의 배신으로 권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몰락

② 무신집권 안정기의 전반적인 특징

* 다음 설명 내용을 보고 옳은 내용에만 체크표시를 해봅시다.

- ☐ 무신들의 권력이 안정화되면서 다양한 무신들의 권력기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 ☐ 문신들은 지속적으로 무신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에 진출하지 않고 은둔하였다.
- ☐ 무신들은 부족한 정치적 식견을 보완하기 위해 문신들을 정치에 참여시켰고, 이 과정에서 문벌귀족들이 다시 정계에 진출했다.

3) 무신집권 쇠퇴기



⇒



⇒



4. 무신집권기에 나타난 독자적인 행정기구들

* 다음 표에 들어갈 그림을 오른쪽에서 찾아 적절한 위치에 붙여봅시다.

기구의 이름	기구의 특징	
	- 원래는 높은 계급의 장군들이 모여 회의하던 무신들의 회의기구 - 무신정변 이후에 국가 핵심 기구로 격상 - 문신들의 간섭 없이 오직 무신들끼리만 국정을 논의	
	()때 만들어진 무신집권자의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호위기구 - 무신집권자의 사병 집단이라서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음. - 최씨 정권 시기에는 이 기구의 규모가 (확대 / 축소)	
	()이(가) 만든 무신 정권의 최고 정치 기구 - 이곳의 대장인 교정별감 자리를 최씨 집안에서 대대로 독점 - 국가 공식 기구인 '중서문하성'이나 '상서성'보다 위에 있음	
	- 국가 기관이 아니라 ()의 '개인 집'에 설치되어 운영 - 왕의 고유 권한이었던 인사권을 독점한 인사행정 독점 기구 - 무신정권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남아 왕권을 위협	
	- 문신들이 무신들에게 정책을 조언해주기 위해 설치한 기구 - 무신들의 부족한 행정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설치 - 이곳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이들이 고려말 ()로 성장	
	- 원래는 밤에 도둑을 잡던 '야별초'에서 시작 - 최씨 무신 정권의 명령을 듣는 사병기구로 그 규모가 확대되어 좌별초와 우별초로 확대 개편 - 여기에 몽골에 포로로 잡혔다 돌아온 '신의군'을 합쳐 ()이(가) 되었음.	

5. 고려 무신집권기 농민봉기와 천민봉기

1) 원인

			농민들에 대한 가혹한 세금 수탈 항, 부곡, 소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일반 균현에 대한 조세 징수 강화 무신집권자들의 권력독점과 토지 수탈 이의민과 같은 천민 출신 무신집권자의 등장으로 신분상승에 대한 기대감 고조 최충현과 같은 천민 출신 무신집권자의 등장으로 신분상승에 대한 기대감 고조
---	---	--	---

잘못된 내용은 이 곳에 붙여주세요.

2) 고려 무신집권기 나타난 봉기의 대표적인 사례들

① 반무신란: 무신정변으로 권력을 잃은 ()들의 반란

- 김보당의 난

- 조위총의 난

② 무신집권기 농민봉기

- 망이, 망소이의 난(() ()의 난)

- (), 효심의 난

③ 무신집권기 천민봉기

- () 관노의 난

- ()의 난

④ 최광수(서경), 이언년 형제(담양), 이비, 폐좌(동경)와 같이 각각 옛 삼국의 부흥을 주장하는 봉기도 나타남

● 주요 봉기 발생지



1193년(명종 23) 경상북도 청도의 운문사를 중심으로 김사미가 일으킨 봉기가 초전의 효심, 밀성의 저전촌 등의 저항과 연합하여 나타나게 되었다.

김보당은 정중부와 이의방을 토벌하고 의종을 복위시키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반란을 일으켰으나 반란을 일으킨 9월에 체포되어 개경으로 압송되었다.

1176년(명종 6)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반란의 규모가 커지자 정부에서는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하여 회유하는 척하면서 반란군이 물러나자 주동자를 체포하였다.

1174년 고려 서경유수 조위총의 주도로 일어난 반란으로 한 때 개경을 위협할 정도로 규모가 컸으나 결국 22개월만에 진압되었다.

1198년(신종 원년) 5월에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서 최충현의 사노비인 만적이 노비들을 모아 각자의 주인을 죽이고, 노비에 관한 문서를 불태워 없애자고 하였다.

1182년 전주에서 군사들과 관노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당시 전주지방의 지방관과 주리의 횡포에 반발한 주현균, 관노, 승도, 농민들이 연합하여 봉기한 사건이다.